

독일 통일의 국제적 역학 관계: 'No-Win'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성공으로

Ulrich Albrecht / 자유베를린대학 정치학 교수

머리말

1990년 10월 3일의 독일 통일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통일이 1989년 가을 구동독의 정책 전환을 계기로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급속한 통독 과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으며, 이들은 구동독 정부의 급속한 몰락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지 구동독의 전반적인 개선에 노력하였다. 특히 2차대전 승전 4 개국은 '전체로서의 독일'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하여 이 가운데 3 개국은 1990년 당시 독일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최소한 이를 지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1989년 10월 18일 "우리는 독일의 통일을 저지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¹⁾고 말하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고르바

초프를 방문한 후에 공식에서 "NATO는 전통적으로 독일 국민의 영원인 통일을 지지한다고는 하였지만 우리는 통독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고르바초프에게 이야기하였다. ... 고르바초프는 구소련도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내게 언급하였다"²⁾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조로 1990년 2월 구소련의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구소련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할 경우 약 90%가 통독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³⁾ 승전국 이외에도 폴란드와 같은 독일의 주변 국가들도 통독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당시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이 이끄는 독일 연방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류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겐서 장관은 그가 1990년에 말한 것처럼 통일 과정은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⁴⁾ 4 개 전승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의 부시 행정부만

1) Attali, Verbatim, Tome III, *Chronique des années 1988~91*, Paris, 1995, p. 322(Attali는 10 년 동안 프랑스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음).

2) Margaret Thatcher, *The Downing Street Years*, London, 1995, p. 792.

3) Philip Zelikow/Condoleezza Rice, "Germany Unified and Europe Transformed," *A Study in Statecraft*, Cambridge Mass, London 1995, p. 192. Zelikow와 Rice는 부시 前 대통령의 보좌 팀이었고 현재는 대학 교수이다.

이 콜의 급속한 통일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당시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던 블랙월은 부시 前 대통령의 명을 받아 미국의 입장에서 2+4 팀을 이끌었다. 그는 독일 이외의 국가들 가운데서 독일 통일을 이끈 유일한 서방측 정치가였다. 블랙월은 독일 통일 문제는 “평소와는 다른 적극적인 미국 외교 활동을 보여준 사례”⁴⁾라고 회고하였다.

따라서 통독 과정의 초반기에는 4 개의 승전국 가운데 3 개국의 비토-그룹이 형성되었다. 이는 통일의 서막에 있어 콜과 쾨서에게는 “이길 수 없는(No-Win)” 상황으로 비추어졌다. 그러나 9 개월만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승전 3 개국인 구소련, 영국 그리고 프랑스의 태도 변화와 미국을 비롯한 구서독과 구동독의 역할은 이 논문의 주 테마가 될 것이다.

독일 통일에 대한 승전 3 개국의 단호한 거부 반응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1989년 12월 초 키에프에서 고르바초프는 미테랑 대통령에게 “독일이 통일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다

면 전쟁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다.⁶⁾ 미테랑 대통령도 한 사석에서 “독일의 통일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이를 구소련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⁷⁾ 영국의 대처 수상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강력한 힘을 지닌 독일의 재건설은 구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함을 의미한다.”⁸⁾ 사실, 독일의 통일은 구소련의 쇠퇴, 초강대국의 퇴장, 공산주의의 몰락 등과 연계된 사건이다. 대처 수상은 독일 통일에 대한 프랑스 미테랑의 유보적 입장에 대해 “미테랑 대통령은 이성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사람이지만, 프랑스의 국내 정치는 다소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느낌이다. 대다수 프랑스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독일 치하의 프랑스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⁹⁾라고 대변하였다. 대처 수상의 의지는 확고하였다. “유럽의 힘 균형에 있어 통일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이제 새롭고 다른 측면에서의 ‘독일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¹⁰⁾ … 독일은 공격성과 자기 의혹 사이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4) Barbara Munske, “The Two Plus Four Negotiations From a German-German Perspective,” *An Analysis of Perception*, Muenster - Hamburg, 1994.

5) Robert D. Blackwill, “Deutsche Vereinigung und amerikanische Diplomatie,” *Aussenpolitik*, Zeitschrift fuer internationale Fragen, 1994, III, S. 213 - Blackwill은 1990년 당시 NSA에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으며, 현재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독일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독일 대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6) Attali, J., p. 366.

7) *Ibid*, p. 313.

8) Thatcher, M., p. 792.

9) *Ibid*, p. 552.

것이다. ... 독일의 진짜 두려움의 원천은 독일의 자각에 대한 고민이다. ... 고유의 특성상 유럽에서 독일은 안정보다는 불안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¹⁰⁾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는 독일의 통일에 대해 구소련식 사회주의체제와 바르샤바조약의 종말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미테랑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움직였으며, 대처는 독일에 의해 유럽의 균형이 깨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일의 서막: 오타와회담

1990년 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담은 ‘영공 개방(open-skies)’ 회담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외국 영토에 대한 정찰을 제3국의 비행기를 사용해 실시한다는 아이젠하워前 대통령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동서 화해와 더불어 이 회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유럽 주둔 병력을 미국과 구소련 양국이 각각 19만 5,000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오타와회담은 이후에도 계속적인 외교 노력으로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베이커 국무장관의 주도로 한편으로는 NATO와 바르샤

바조약간의 공식적 회담이 이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베이커와 세바르드나제 구소련 외무장관간의 독일 문제에 관한 회담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월 13일 베이커와 세바르드나제는 최소한 5 회 이상 접촉하였으며,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정부 대변인인 Hurd와 Dumas가 배석한 가운데 겐서 독일 외무장관을 비슷한 회수로 만났었다.¹²⁾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6 개국 외무장관들은 13줄의 간략한 코뮈니케를 발표하였다. 당시 구동독 외무장관이었던 오스카 휘셔는 코뮈니케 작성에 있어 그는 주변자적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2차대전 승전국들의 임무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다고 슬회하였다. “외무장관들의 회담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안보 문제를 포함한 통일 독일 수립에 있어서의 양 독일을 제외한 외국의 입장만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언젠가는 통일을 반대하는 3 개국의 수도에서 다음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여운을 남겨 놓았다. 이 코뮈니케¹³⁾는 유럽은 다른 외무장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독일은 더 이상의 국가들이 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반

10) *Ibid.*, p. 769.

11) *Ibid.*, p. 791.

12) Zelikow, Ph./Rice, C., p. 191.

13)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사회주의공화국, 프랑스, 영국, 구소련, 미국 외무장관들이 1990년 2월 13일 오타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의 코뮈니케.

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2+4' 또는 '4+2'?

각기 다른 입장으로 인하여 회담 초기에는 논쟁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되었다. 독일은 겐서 외무장관의 주장대로 2+4 입장을 견지하였다. 겐서 장관은 회고록에서 “나는 양독일이 통일이라는 둘만의 문제를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주변 4 개국이 독일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배격되어야 했다. 따라서 회담의 이름은 4+2가 아닌 2+4로 명명되어졌다”라고 기술하였다.¹⁴⁾

그러나 다른 회담 참여자들의 입장은 정반대였으며, 승전 4 개국들은 4+2 회담을 주장하였다.¹⁵⁾ 특히, 대차 수상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구소련을 끌어들이었으며, 구소련도 독일의 통일 방정식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측근이었던 체르나예프는 4+2를 고수하였다.¹⁶⁾ 특히, 오랫동안 구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 담당 비서였던 팔린은 “구소련 외무장관은 4+2를 관철시키도록 요청받았다. 하나의 독일에 대한 책임

감은 4 개 승전국의 몫이며, 구서독도 최근까지는 이러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요청하였었다. 또한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도 고려하여야 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4+2 공식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것이다.”¹⁷⁾ 팔린은 이 논의에서의 구소련의 패배에 대하여 훗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2+4의 실현은 구소련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었다.”¹⁸⁾

독일인들이 그들의 통일 문제에 있어 회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회담의 명칭도 그들의 의도대로 관철시켰던 것은 국제 역학 관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동부 국경 문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 문제는 독일 통일에 대한 2+4 과정에 초반부터 끝까지 주요 논점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독일과 폴란드 정부의 입장 접근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오랜 숙고를 필요로 했던 사항이기도 하였다.

국경 문제의 해결은 독일의 정부와 관변 기

14) Geshcer, H.D., Erinnerung, Berlin, 1995, S. 716f.

15) Lehmann, Ignés, Angst-Bedenken-Erwartungen, *Westliche Pressreaktionen auf die deutsche Vereinigung*, 1989/1990, Diss., FU Berlin, 1995.

16) Thschernajew, Anatoli, *Die letzten Jahre einer Weltmacht. Der Kreml von innen*, uebers., v. F. Boemer/N. Juraschitz/U. Miht, Stuttgart, 1993, S. 295 u. 297.

17) Falin, Valentin, *Politische Erinnerungen*(독어번역판), Muenchen, 1993, S. 491.

18) *Ibid.*

관의 입장¹⁹⁾과는 달리 완벽하고 매끄러운 외교적 작품일 수가 없었으며 많은 갈등을 내재한 과정이었다. 독일인들은 과거의 동부 영토를 영원히 포기하였다. 영국 수상은 독일이 동부 지역에 대해 다시금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우려를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서방측 국가들간의 열띤 논쟁이 있었던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당시 콜 수상의 태도가 매우 흥분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대처 수상은 1989년 12월 유럽의회에서 콜 수상과의 만남을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콜 수상은 ‘독일은 영토의 1/3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난 전쟁의 대가를 치렀다’ 라고 말했다. 그는 국경 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했으며 오더-나이제 국경선은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언뜻 보기에 당시 그는 폴란드 입장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같았다.”²⁰⁾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1989년 12월 21일 그는 그의 측근에게 “콜이 오더-나이제 국경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²¹⁾

독일은 대내 정치적으로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이 문제로 인해 자유민주당(FDP)의 겐서 외무장관과 기독교민주당(CDU)의 콜 수상간의 마찰이 빚어졌다. 일례로, 1990년 2월 말 콜 수상은 2+4회담에 폴란드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에 워싱턴 주재 독일 대사를 비롯하여 외무부 관계자를 일체 배석시키지 않았다. 1990년 2월 28일 각료 회의에서 겐서 외무장관은 독일과 폴란드간의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폴란드의 마조비치 수상의 제안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콜과의 대결을 의미하는 발언이기도 하였다. 겐서 외무장관의 UN 총회 발언을 통해 볼 때 對폴란드 국경 문제에 대해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독일 정부 내의 갈등은 외국에서도 감지가 되었다. 베이커 美 국무장관은 겐서를 고려하여 美 대통령과 콜과의 회담 장소에 배석하지 않았다. 1990년 3월 6일 겐서는 연정 개편을 주장하며 수상을 공격하였고,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로 기민당-자민당 연정이 붕괴되는 듯하였다.²²⁾

이 국경 문제는 2+4 테마와는 다르게 법률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 과거 승전 4 개

19) Kriesler, Richard/Elbe, Frank, *Ein runder Tisch mit scharfen Ecken: Der diplomatische Weg zur deutschen Einheit*, Baden-Baden, 1993; Kaiser, Karl, *Deutschlands Vereinigung: Die internationalen Aspekte*, Bergisch Gladbach 1991. 반대 입장으로는 Woge zum '2+4'-Vertrag, Die aeußeren Aspekte der deutschen Einheit, Schriftenreihe der Forschungsgruppe Deutschland 6, Muenchen, 1996.

20) Thatcher, M. p. 790.

21) Attali, J. p. 381.

국은 '하나된 독일'의 국경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으며, 독일 총리도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서독도 구동독도 대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순수하게 법률적으로만 볼 때 이러한 입장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러한 승전국의 법률적 해석의 유보는 1989년 국제 정치적 변혁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국경을 결정하는 데 반론이 있을 수 없었다.

콜 수상도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국경 문제의 승인에 대한 지루한 협상 과정에 염증을 느꼈다. 블랙웰은 "이 문제는 콜에게 있어 국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통일 전에는 국경 문제를 매듭지어야만 했다. 특히, 남부 독일에는 공화당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국경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곧 있을 총선에서의 결과가 불안하기만 하였다"²³⁾라고 기술하고 있다. 첼로비치와 라이스는 저서를 통해 당시의 국경 문제와 국내 정치 문제의 연관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당시 많은 구서독 국민들에게 콜이 통일을 위해 1945년 이전의 국경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제스처가 매우 적절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 콜의 이 같은 행동은 국내 정치적 목표라는 제안에 국제적 안정을 희생시킨 것이다."²⁴⁾ 미국의 2+4회담의 참석은 많은 구서독인들에게는 그들의 수상이 국제적 안정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비춰졌다. 결과적으로 "부시 대통령은 입장이 날랐다. 콜은 국내 정치 행동에 있어 외교적인 선택들을 배우지 못했다."

콜 수상의 행동은 외국에 있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계속 비춰졌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1990년 2월 20일 워싱턴으로 가는 여정에서 쇼이블레 독일 내무장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왜 독일인들이 폴란드에게 국민 투표를 통한 연합된 법률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²⁵⁾ 미국 대통령은 1990년 2월 폴란드에 약속하는 독일의 제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였다.

1990년 2월 24일 콜 수상은 부시 대통령과 통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로 향하였다. 이곳에서 양국 지도자들은 2+4회담에 공식적으로는 폴란드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콜은 폴란드가 이 회담에 참여하여 이미 독일이 폴란드와 이스라엘 등에게 지급한 전쟁 배상 문제를 다시 거론할까봐 내

22) Zelikow, Ph/Rice C., S.218, Kiessler, R/Elbe, F., S. 116~117; Schaeble, Wolfgang, *Der Vertrag: Wie ich ueber die deutsche Eoinheit verhandelte*, hrsg. von Koch, Dirk und Wirtgen, Klaus, Stuttgart 1991, S. 60~65.

23) Blackwill, p. 217.

24) Zelikow, Ph/ Rice, C., S. 153, 213.

25) Schaeble, W. S. 591~600.

심 걱정하였다. 종전 50 년이 지나서 독일이 다시 배상할 수는 없는 처지였다. 이 회담은 폴란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²⁶⁾

미국인들은 또한 폴란드가 독일 통일 문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프랑스·폴란드의 주도권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월 중순 마조비치 수상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가 전해졌다. 독일이 “법률적이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국경 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착수하였다.”²⁷⁾ 폴란드는 국가의 이해에 근간을 두고 이러한 결정을 수용해야만 했다. 파리에서 독일의 겐서 외무장관은 폴란드는 2+4 회담에서 국경 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폴란드·독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3월 중순경 절정을 이룬 콜과 마조비치간의 심사 숙고에 달려 있다.”²⁸⁾ 미국 중재의 중요한 기여는 폴란드 수장과 독일의 수상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조약의 핵심에 관한 공식을 도출하는 것이었다.

콜 수상은 의회 연설을 통해 국경 문제는 더 이상 오래 끌지 않을 것이며, 폴란드가 전후 복구 비용을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1990년 6월 21일 양국 의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는 실현되었다. 양국 의회는 통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을

오더-나이제로 결정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언뜻 보기에 콜 수상은 국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의미를 과소 평가한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독일 결정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이를 2차적인 문제로 보았다. 그의 설득력은 이 문제의 만족스러운 해결을 가져왔고 4 개국들은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치학자들에게 국제 역학 관계 중간 단계로서 통독 과정에 있어서의 독일·폴란드 국경 인정에 관한 논의는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독일의 입장에서 현 국경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자는 폴란드의 지속적 요구에 반박을 하지 않았으나, 폴란드의 정책적 요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는 실패했다. 폴란드의 정책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정책 또한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연합국 태도 변화의 원인

우선, 미국의 정책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부시를 주축으로 하는 미국의 협상 팀은 빠른 속도로 통일을 추진하는 독일 총리의 정책을 따라가기로 일찍이 결정하였다. 이는 미국이 특별히 독일을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러시아의 견제하는 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베이커 국무장관은

26) Zelikow/Rico, S. 222f.

27) *Ibid.*, S. 219.

28) Blackwill, *Ibid.*, S. 217.

세바르드나제 외무장관에게 실현성없는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협상에 임하라고 전하였으며 통일 독일은 NATO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1990년의 상반기까지 러시아는 이러한 방향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럴 입장도 못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는 상황 분석이 있었다.

블랙윌은 가능한 구소련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하였다. “모스크바는 통일 독일이 NATO의 회원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 한 승전 4개국의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어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또 서방 지역의 연합군 철군에 따른 구동독 주둔 38만 구소련군의 철수에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구소련은 통일 독일이 NATO 회원국으로 남는다면, 유럽 안보에 대한 구소련의 새로운 구상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²⁹⁾

과거 본 주재 구소련대사였으며 후에 외무장관 대행을 지냈던 크비진스키는 1993년 발간된 그의 저서를 통해 미국의 전망을 이렇게 적었다: “나는 아직도 독일인들이 선거 전에 ‘통일 또는 NATO’를 충분히 결정하였다면 독일이 NATO에서 최소한 나토의 군사위원회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³⁰⁾

두 사람의 판단은 적절하였다. 1990년 초

여름 만일 구소련 지도부가 독일에 대해 통일과 NATO 가운데 선택하라고 촉구하였다면 결과는 확실하였을 것이다. NATO 회원국이라는 위치는 일부 외교 엘리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었지, 보통의 독일 시민들에게 있어 NATO 회원국이란 위치 고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독일이 제외된 NATO는 제 구실을 못하였을 것이다. 젤리코프와 라이스는 책의 서문에서 이러한 의미있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미국은 통일 독일이 41년간의 오랜 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향후 유럽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여야만 한다.”³¹⁾

유럽에서 미국의 안보 정책상 주도적 역할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붕괴 이후의 체제 전환 관정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미국은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추진하여야만 했다. 젤리코프와 라이스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실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독일 통일의 문제에 있어 조기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서 콜의 정확한 입장을 자주 파악하는 노력을 하였다. 이는 독일 수상으로 하여금 든든한 배후를 지니게 하였고, 그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콜이 통일 속도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펼칠 때면 언제나 부시의

29) Blackwill, S. 212.

30) Kwizinskij, Julij A., *Vor dem Sturm. Erinnerungen eines Diplomaten*, Berlin, 1993, S. 22.

31) Zelikow, Ph./Rice, C., S. 2.

후원이 있었다. 콜은 아데나위에 대한 서방측의 약속을 미국 대통령이 지킬 것으로 믿고 있었다: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은 독일이 통일되는 날 독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1989년 부시는 콜에게 이상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약했었다.³²⁾

구소련의 태도

구소련은 아주 오랫동안 독일 통일의 연쇠를 쥐고 있었다. 크비진스키는 “우리 군대가 아직도 구동독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독일의 나토 탈퇴와 양독 국가 연합(confederation) 구성이 독일 통일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³³⁾

고르바초프 자신도 영국과 프랑스와 비토-그룹을 형성하면서 통독에 관한 문제를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체르냐예프와 마찬가지로 그는 1990년 1월 한 소모임에서 “나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하루 동안 여러 나라의 수도들을 오가야만 한다”³⁴⁾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와 그 측근들은 독일 문제와 연관된 다른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 발전을 곧 알아차렸다. 더 광범위한

무기 감축,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미국의 측면 지원 등은 구소련이 독일 문제에 유연성을 보여야만 가능한 것들이었다. 진정한 구소련 입장에 대한 인식은 1990년 여름 미국 입장로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정상회담에서 독일 통일은 국제적으로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서방측의 해결 방안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1990년 7월 독일은 카우카스회담에서 구소련측의 독일 통일에 대한 구소련측의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었다. 이 협상 문서에는 통일 독일에 나토군의 비주둔과 폴란드와의 국경 문제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태도

구소련의 비토가 제거된 후의 영국과 프랑스의 태도는 간단히 파악할 수 있다. 블랙웰은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선택(하나는 대서양 연합 촉진을 위한 독일인들의 이해에 따른 독일 통합이고, 다른 하나는 양 독일이 점진적 과정을 거쳐 통합되도록 4개 승전국의 권리를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의 선택에 직면하였다면 2번째 대안을 선택하였을 것이다”³⁵⁾라고 기술하였다. 미테랑은 1990년 2월 통독 과정에 대한 구소련 대통령의 최초 승인에 대해 분노를 표명하였다. “도

32) *Ibid.*, S. 367.

33) Kwizinski, J.A., S. 12.

34) Tschernajw A. S. 297.

대체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왜 그럴까? 그는 나에게 자기의 의지는 확고 부동하다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다! 콜이 대체 무엇을 주었을까? 몇 10억 마르크를 주었을까?”³⁶⁾ 몇 달이 지나 2+4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990년 5월 말 미테랑은 모스크바 방문시 이를 다시 상기시켰다: “나는 고르바초프에게 독일 통일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가 내편을 계속 들었다면 나는 이를 기꺼이 추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며칠 후 고르바초프가 이를 포기한다면, 나와 콜과 사이가 나빠질 이유가 없다.”³⁷⁾

대체 수상은 솔직히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추진한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를 든다면, 독일 통일에 관한 정책이었다.³⁸⁾ 현실상 유럽에 있어 통독을 저지할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³⁹⁾ 대처는 고르바초프가 콜에게 돈으로 팔렸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거래(quid pro quo)는 곧 밝혀질 것이다. 7월 크림(Krim)회담에서 구서독 수상은 사실상 더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액수를 합의하였다.”⁴⁰⁾

독일 통일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 정책 전환의 세부 사항은 이제 미국이 의도한 원점으로 돌아왔다. 블랙윌은 외무장관 차원인 2+4 예비 회담 직전인 1990년 4월 중순경을 정책 전환 시점으로 적고 있다. “美 대통령은 4월 13일 버뮤다에서 대처 수상을 만났고, 4월 19일 키라고(Key Largo)에서 미테랑을 만났다. 그리고 4월 25일 콜과의 전화 통화를 가졌다. 이러한 노력이 있는 후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그들의 지지부진한 태도를 포기하였고, 통일에 있어 4 개국의 권한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다.”⁴¹⁾

통일의 반대 세력(비토 그룹)들은 결과적으로 지역내 정치적 역학 구조의 이유만으로 그들의 입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3 개국은 1989~90년의 격동기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었던 民族自決權이라는 국제 정치의 대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독일 통일은 독일 국민의 새로운 통일에 일반적 합의를 한 몇몇 정치가들의 외교적인 성과가 아니라, 국제 역학과 기본적인 정치 원칙간의 보기 드문 병립성에 기인하고 있다. ㉞

35) Blackwill, S. 212.

36) Attali, J., S. 416.

37) *Ibid*, S. 495.

38) Thatcher, p. 813.

39) *Ibid*, p. 797.

40) *Ibid* p. 798.

41) Blackwill, R., S. 217.